

해남군, 어촌 소멸 위기 극복·지속가능 기반 조성 박차

내년 250억 투입 어촌 정주 여건 '대개조'
어란진항 서남권 명품 스마트 어항 육성
학가·우근항 100억 투입 생활여건 개선
명현관 군수 "지속 가능 어촌 기틀 마련"

해남군이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신규 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대거 확보하며 낙후된 어촌의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켰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

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도비 22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어촌 대개조에 나선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시설물을 짓는 것을 넘어,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 오는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 기반을 닦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송지면 어란진항에는 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어란진항은 해남의 대표적인 국가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쉼터 신축, 공동 실내 작업장 조성, 해양 쓰레기 저감 시설 설치 등 어업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광장 및 스마트 쉼터 등 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인 물김과 전복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어란진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명품 스마트 어항'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송지면 학가항과 우근항 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2026년부터 4년간 총 100억원(국

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둔다.

학가항에는 어업인 안전 쉼터와 어항 내 진입 도로 확장, 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확충되며, 우근항은 선착장 연장 및 물양장 확장 등 어항시설 정비와 함께 물김 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 국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변 연계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는 '어란진항 신항 개발사업(총사업비 458억원)'에 내년 국비 42억원이 반영돼 항로 준설과 호안 시설 축조 등

이 진행된다.

아울러 송지면 어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60억원)을 통해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217억원 규모의 어불도 연륙교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어서 해남군 어항 일대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대규모 국비 확보는 해남의 어촌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정주 인프라를 대폭 개선해 지속 가능한 어촌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전남도 동물방역 평가 3년 연속 수상

2023·2024년 이어 올해 대상 받아
AI 등 악재 속 선제 차단 방역 '호평'

함평군이 3년 연속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청정 축산 1번지'의 입지를 굳혔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전남도 동물방역위생 시책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군은 2023년 대상과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정상을 탈환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 정책 ▲동물 방역 ▲축산물 위생 ▲방역 대응 등 4개 분야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함평군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군은 올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은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해 질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농장별 방역 수칙 점검 강화 ▲기금 농가 초소 운영·시설 지원 ▲공동 방제단 및 거점 소독시설 상시 운영 등 디중적인 방역 망을 구축했다.

또 방역 대책 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 농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도 주효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협조와 행정의 철저한 방역 노력이 빛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 질병 없는 '청정 함평'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무안군, 청년농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짓는다

200억원 투입 현경면 일원 조성
공동 육묘장·교육·실증 단지 등

무안군은 15일 "전남도 주관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선정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현경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여기에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동 육묘장, 교육·실증 단지, 유통·가공 시설, 정주 공간 등을 연계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끼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저렴하게 장기 임대(기본 5년+연장 5년)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경험을 쌓고 종잣돈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돋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무안군은 사업 선정을 동력 삼아 내년 초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에도 총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지역 단위 스마트팜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이상기후 와 고령화 등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무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광군 자동심장충격기 130대 일제 점검

배터리·패드 등 확인, 교육 여부도

영광군은 "최근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130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치 의무 기관은 물론 자율적으로 설치한 비의무 기관까지 포함해 빈틈없이 진행된다.

최근 AED 보급이 늘어나면서 장비 유지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배터리와 패드 등 소모품의 유효기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사용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



피고 있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가 교육을 실시해 장비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 명품 광어' 최대 주산지 명성 잇는다

전국 생산량 36% 점유…품질 고급화
친환경 에너지·사료 저장 시설 등 지원

전국 최대 광어 주산지인 완도군이 '완도 명품 광어'의 명성을 잊고 어류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 해 어류 양식업 분야에 총 5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섰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193개 어가가 광어 양식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생산량은 약 1만4천88t으로 전국 생산량의 36%를 차지했다. 올

해도 11월 말 기준 1만4천t을 생산하며 순항 중이다.

완도 광어는 정화 작용이 뛰어난 맥반석 해저의 청정 바닷물에서 자라며, 양질의 사료를 먹고 성장해 자연산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군은 '명품 광어'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을 투입해 73곳에 히트 펌프와 인버터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백신 공급 및 각종 질병 검사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어 처리 비

용을 지원과 도·군비 등 15억원을 들여 대규모 '친환경 고효율 사료 저장 시설' 건립을 추진, 안정적인 배합 사료 공급 기반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양식장 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수산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광어는 타지역에 비해 생육 상태가 좋고 맛도 뛰어나다"며 "앞으로도 어가 소득 증대와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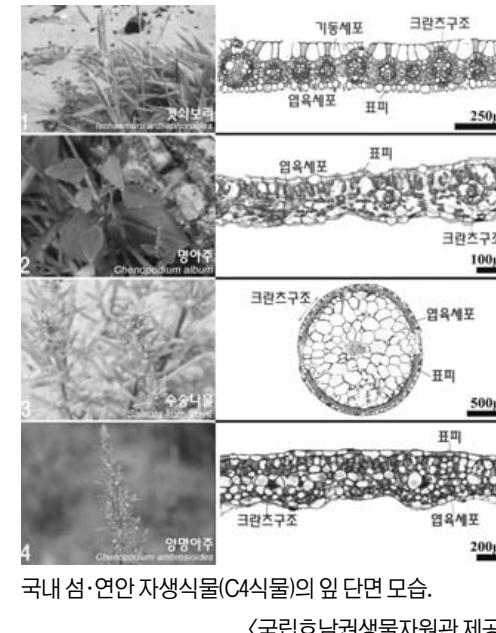
호남권생물자원관, 국내서 '탄소 흡수왕' C4 식물 서식

명아주·수송나물 등 5종 확인

국내 섬과 연안에 자생하는 식물 중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C4 광합성 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 섬·연안 지역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해부학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양명아주·명아주·솔장다리·수송나물·갓쇠보리 등 5종이 'C4 광합성 식물'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C4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 4개로 이뤄진 화합물을 만드는 식물을 말한다. 일반적인 식물(C3 식물, 탄소 3개 화합물 형성)보다 탄소 농축 효율이 월등히 높아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특히 이들 식물은 강한 햇빛과 높은 염분, 세 바람이 부는 해안이나 모래언덕(사구)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생존하는 강인한 특성을 지닌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에 확보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취약종 보호, 탄소 저감 식물 지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세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임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섬 식물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가 미비해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는 섬 식물이 기후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생물 자원을 발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오는 26일까지 '동계 대학생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 20명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7월 진행된 멘토링 활동 모습. 〈영암군 제공〉

영암미래교육재단, 겨울방학 '대학생 멘토' 20명 모집

26일까지 접수…초·중생 학습·진로 지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15일 "오는 26일까지 '2026년 동계 대학생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와 지역 초·중학 생 멘티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사회

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관내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3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현재 영암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선발된 멘토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멘티 2~3명과 팀을 이뤄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겨울방학인 내년 1월이며, 총 40

시간 동안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함께한다.

재단은 내년 1월 10일 '멘토-멘티 결연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또는 영암군미래교육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멘토링이 선배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후배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영암=나동호 기자